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길의 반추상적 표현을 통한
내적 자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유 진

길의 반추상적 표현을 통한

내적 자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유 진

인 준 서

김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임 상 빈 (인)

심사위원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 병 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24년 1월에 전시한 석사 청구전 [road]展의 작품들을 기반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road_’ 연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걷기’를 통해 깊은 내면의 자아를 재발견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에서의 해방감을 길의 이미지로 시각화한 작업이다.

나는 종종 명확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경계인 혹은 주변인 같다는 생각을 한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질감으로 인한 고독과 방황 등의 복잡한 감정은 내가 두 발로 걸어가며 직면하는 도시 속의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재발견된다. 이러한 재발견과 함께 자신을 감각하고 사유하며 해방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더 깊은 내면의 층위를 마주하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말과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이 경험을 회화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걷기 예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자연 속에서 속도를 잊고 걷기를 주장한다. 한편 도시를 벗어나서 살아 본 적이 없는 나는 도시 속에서 걷기에 주목한다.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주는 원초적인 신체 운동은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업의 중요한 과정인 도심 속의 길을 걷는 것을 시작으로 길의 형상은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다. 일상 속의 익숙한 길을 걸어다니며 생경한 순간이나 착시 현상에서 오는 모순적인 장면과 주관적인 감각을 포착하여 작업에 반영하였다. 같은 길을 계속 걸어 다니며 다르게 감각되는 순간과 변해

가는 내면의 감정을 반영하며 레이어를 쌓아갔다. 길을 암시하는 요소를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건물, 조경 등과 같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색과 형태를 변형하고 왜곡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시켰다. 또한 즉흥적인 붓의 스트로크를 통해 내면을 표출하여 익숙한 길이 주는 친숙함과 예측 불가능한 붓질이 주는 의외성에서 오는 반추상적인 형식으로 이어 나갔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일상 속 단순한 걷기를 시작으로 모순적인 내면의 자아를 재발견하며 해방감을 느끼는 과정을 탐구하여 현대인의 이면의 한 부분일지도 모를 경계인이 가지는 내면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나의 작업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은 사유로 견고하게 정립하고, 조형적 연구와 미학적 시도를 심도 있게 이어 나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4
1) 도시 속 걷기	4
2) 도시 속 길의 형상	6
3) 경계인의 감정	8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0
1) 형태와 색의 왜곡과 변형을 통한 반추상적 표현	10
2) 붓의 스트로크를 통한 내면의 표출	14
3. 작품 분석	16
III.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

작 품 목 차

[작품 1] road_spacewalk 1, 130.3x80.3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3

[작품 2] road_spacewalk 2, 3, 4, 45.5x27.3cm/each, oil on panel, 2024

[작품 3] road_breakaway, 181.8x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3

[작품 4] road_pool, 165x78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3

[작품 5] road_0552, 162.2x112.1cm, oil on panel, 2023

[작품 6] road_1835, 162.2x112.1cm, oil on panel, 2023

[작품 7] road_in between 4,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3

[작품 8] road_in between 5, 45.5x27.3cm, oil on canvas, 2023

[작품 9] road_in between 2, 116.8x80.3cm, oil on canvas, 2022

[작품 10] road_swimming 3, 130.3x97cm, oil on canvas, 2023

[작품 11] road_swimming 2, 141x105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2

[작품 12] road_stranger 2, 50x40cm, acrylic on paper, 2022

- [작품 13] road_zero gravity 1, 50x40cm, acrylic on paper, 2023
- [작품 14] road_0635, 40x3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2
- [작품 15] road_zero gravity 2, 53x33.4cm, oil on canvas, 2023
- [작품 16] road_stranger 6, 130.3x97cm, oil on canvas, 2022~3
- [작품 17] road_stranger 7, 50x4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3
- [작품 18] road_stranger 8, 9, 45.5x27.3cm/each, oil on canvas, 2023
- [작품 19] road_stranger 10, 40.9x24.2cm, oil on panel, 2024
- [작품 20] road_swimming 4, 145.5x97cm, oil on canvas, 2023
- [작품 21] road_flow 1, 53x33.4cm, oil on panel, 2022
- [작품 22] road_flow 3, 130.3x89.4cm, oil on canvas, 2022
- [작품 23] road_flow 4, 50x4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2

참 고 도 판

[도판 1] Richard Long, Dusty boots line, The Sahara, 1988

[도판 2] road_swimming 1, 60.6x50cm, acrylic on canvas, 2022

[도판 3] road_0552 & road_1835 (detail)

[도판 4] Edvard Munch, Verzweiflung, 70x44.5cm, oil on canvas, 1892, Thielska galleriet, Stockholm, Sweden

[도판 5] Edvard Munch, The Scream, 84x67cm, oil on board, 1893, Munch Museum, Oslo, Norway

[도판 6] Peter Doig, Luncker, 200x266cm, oil on canvas, 1995

[도판 7] road_in between 4,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3

[도판 8] road_breakaway (detail)

[도판 9] Francis Bacon, Three studies for portrait of Isabel Rawsthorne, 35.6x30.5cm, oil on canvas, 1965

[도판 10] road_in between 3, 45.5x37.9cm, oil and acrylic on canvas, 2022

I. 서론

나는 내 자신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¹⁾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뒤돌아보면 지방의 신도시에서의 나의 유년 시절이 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도시로 전학했던 과정, 신생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도심 지역으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이질감, 그 이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이방인으로 경험한 이질감, 해외 유학으로 인한 낯선 공간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이질감, 회사 입사 후에 주어진 직무와 나의 이상과의 괴리에서 생겨난 이질감, 가족에 대한 책임과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역할(장녀, 언니, 아내, 부모)과 자유롭게 꿈을 찾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경험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질적인 감정들은 날이 갈수록 섬세하게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어찌 보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이러한 감정들에서 오는 고독감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며 어느 집단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싶은 자발적인 고독함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1) 경계인 - 때로는 집단이나 사회의 주변부에 자리하면서 성원(成員)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을 완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이른바 '주변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또는 사회에 동시에 소속하여 그 때문에 행동의 기준적 틀이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을 경계인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계급 상승이나 하강, 농촌에서 도시로의 지역적 이동을 수반한 사회적 이동, 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연령적 이행, 결혼이나 이민 등에 의하여 다른 문화형을 가진 집단에 동시에 소속을 강요당하는 사람을 그 전형으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가치체계가 대립하는 쌍방의 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어 크고 작은 심리적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퍼서널리티의 분열에 곤란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경계인은 과도한 자의식이나 열등감을 갖기 쉽고 그 결과 자살·범죄·비행 등 사회병리적 징후가 보통 사람에 비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계인 [境界人, marginal man]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이태신)

나는 어느 집단에 안정적으로 속한다는 감정인 소속감이 결여된 경계인 혹은 주변인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고독감을 도시 속 혼자 걷기를 통해 승화하고 작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길이 제일 먼저 생기거나 만들어진다. 나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기능적으로 무미건조하게 건설된 아스팔트 길을 매일 마주한다. 이렇듯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는 혼한 길이지만 나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내면의 갈등을 정면으로 인지하며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해방감을 경험한다. 효율성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대 도시의 삶 속에서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신체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 두 발로 걷기를 통해 경험한 내면의 재발견 과정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 제작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도심 속 걷기이다. 일상 속의 익숙한 길을 오랜 시간 걷고 마주하는 생경한 순간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그 울림을 기억하기 위해 걸어가며 길이 움직이는 시점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어 색, 형태 등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새로운 감정과 요소들을 기억하고 짧은 문장이나 단어, 주조색 등을 드로잉북에 기록했다.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흑백의 작은 크기로 출력하거나 드로잉북에 스케치를 하고 또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 다녔다. 메모지 정도의 작은 크기로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거나 스케치를 하여 길의 전체적인 형상은 잊지 않되, 캔버스에 본 작업으로 진행할 때 당시에 경험한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황을 만들었다. 캔버스에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같은 길을

계속 걸어 다니며 그때의 감정과 감각을 다시 떠올리며 레이어를 쌓았다. 길을 걸어가며 보이는 착시 현상이나 모순된 형태와 색조의 감각을 바로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태블릿 페인팅으로 적용한 후에 실제 작업에 반영하기도 했다. 추상적인 감각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로 밀칠 과정에서 색 선택과 붓질에 신중을 기하여 그때의 감각을 구현하려 하였다. 작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까지 밀칠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각 다른 색으로 중첩시켜 모호한 느낌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길 위에서의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리듬과 정신적 울림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자 붓질의 흔적을 읽어내고 가려내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때때로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붓질을 시작하여 작업이 오랜 시간 동안 표류의 상태가 될 때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유연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은 길을 계속 걸어야 했다.

본론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인 도시 속에서 걷기와 길의 형상의 의미와 내면의 발견 과정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진행한 작품의 조형적 측면을 분석한다. 변형과 왜곡을 통한 추상적 이미지, 붓의 스트로크에 관하여 서술한다. 3장의 작품 분석은 작품의 배경, 표현적 특징, 회화적 기법 등을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바와 앞으로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자신만의 솔직한 내면을 발견하는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 이 발견이 더 심도 깊은 나의 내면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현대인의 이면의 한 부분일지도 모를 경계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도시 속 걷기

효율성이 중시되는 도시의 삶 속에서 ‘걷기’는 어떤 의미일까. 시간 낭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도와주는 탈것이 다양한 도시의 일상에서는 먼 길을 굳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현대 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 운동을 위한 걷기는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걱정 없이 실내에서 최신식 화면이 설치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선택일 것이다.

내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걷기’ 이자 작업의 중요한 시작인 도시 속 길 걷기는 실내가 아닌 ‘밖’ 이고, 철저하게 혼자 걷기이며, 스마트 폰 등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걷기이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위에 두 발을 딛는 촉감을 시작으로 걷다 보면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에 리듬을 느낀다. 잿빛 길 위의 그림자, 크랙, 등으로 흔들리는 시야는 건물, 조경, 대기가 섞여 모호한 울림을 주기도 한다. 내 발자국 소리가 익숙해지면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내 귀에 닿아 울림으로 전해온다. 모든 감각에 생기는 울림은 정신적인 울림으로 이어진다.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 되올려 나오는 현상을 뜻하는 울림이라는 개념은 소리뿐 아니라, 색, 형태, 정신,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색의 울림을 예로 들어보면 상반된 색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다 보면 모호한 울림이 전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자극에 내면의 소리가 더해져서 울림이 생기는 경우의 예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의 울림을 들 수 있다. 대상이 보이지 않고 단지 그 이름만 들릴 경우에 듣는 사람의 머리에는 추상적 표상이 떠오르는데, 이 대상은 마음속에 진동을 야기시킨다.²⁾ 시적 감성에 따라 느끼는 감정적인 떨림이라는 의미에서 단어의 울림이라는 생각이 든다.

홀로 걷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³⁾ 경계인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나는 혼자 걷기를 통해 두 발이 길 위에 닿은 촉감을 시작으로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 논리적 분석이 아닌 새로운 감성으로부터 분출되는 표현으로 글을 쓴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고백록』에서 ‘여러 가지 공상들이 나의 동행이 되어주고 있었다 … 나는 그때 혼자 걸어가면서 했던 생각들과 존재들 속에서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라고 했다.⁴⁾ 고독하게 걷다 보면 생기는 공상의 리듬이다. 또한 그는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와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했다.⁵⁾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파리 거리 산책에서 시적 영감을 얻은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에 영향을 받아 도시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법으로 도시 보행을 했다.⁶⁾

한편, 걷기를 예찬하는 많은 이들은 대부분 자연의 예찬과 문명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저에 있다. 나는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육체의 움직임인 걷기를 통해 도시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걸었다. 걷기는 결국 본질적인 자연

2)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19, p.42

3) 리베카 솔닛, 김정아 역, 『걷기의 인문학』, 반비, 2023, p.43

4) 다비드 르 브르통, 김화영 역, 『걷기예찬』, 현대문학, 2007, p.24

5) 리베카 솔닛, 김정아 역, 『걷기의 인문학』, 반비, 2023, pp.33-56

6) 윤미애, 『발터 벤야민과 도시 산책자의 사유』, 문학동네, 2020, pp.8-9

의 행위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삭막하기까지 한 건설 중인 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도심에 거주하는 나는 문명 사회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도시 속에서 걷고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2) 도시 속 길의 형상

자동차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에 마주하는 넓은 아스팔트 길은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끝없이 펼쳐진 길의 형상이 텅 빈 도화지나 망망대해 같기도 하다. 이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유도하거나 강요함이 없이 무심하게 놓인 회색지대와 같이 느껴져 아무 목적도 기대도 없이 일단 길을 걸어가 보라 하고 안내 하는 듯하다. 그렇게 정적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듯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바다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나 또한 그런 기대를 안고 바다로 떠나곤 한다. 바다로 향할 때와 도시 속 길을 걷는 것의 다른 점은 무미건조한 길에서 위로나 치유를 기대한다기 보다 부조화와 충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서 모순으로 가득 찬 불편한 내면을 먼저 마주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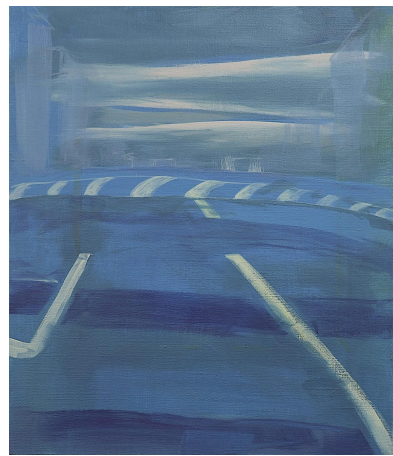
거대한 자연 속에서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고독한 걷기를 행하는 대지 미술가 리처드 롱에게 자연은 도시적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 자유와 침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⁷⁾ 반면 나는 도시 속 길 위에서 본질적인 자연의 행위인 걷기를 통해 강한 고독감을 마주하고 우주 먼지가 되어 부유하는 듯한 자유를 누린다. 리처드 롱은 걸어가며 만든 흔적이 작품이

7) 김혜영, 「리처드 롱(Richard Long, 1945~)의 작품에 나타난 ‘도보(Walking)’」,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26

되어 신체적 행위로서의 ‘걷기’ 그 자체를 전면애 내세운 반면, 나는 걷기라는 신체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울림의 과정을 회화로 작업한다. 리처드 롱의 작품은 그가 걷기를 행한 흔적을 촬영한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사진 속 길의 형상은 회화적인 감상으로 이끈다. 이렇듯 나는 길의 형상이 일으키는 특별한 감동을 시각화하고자 길의 형상을 캔버스에 담는다. 내가 마음의 동요를 온전히 느끼며 생긴 이질적 감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회화적 공간이 바로 ‘길’이다. 나는 캔버스 화면에 걷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동적 요소를 배제하여 정적인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몸, 눈, 그리고 나의 내면이 전부인 상황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길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한편 복잡한 도시 속에서 고독하게 걸어가며 느낀 해방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이다.



[도판 1] Richard Long, Dusty boots line, The Sahara, 1988



[도판 2] road_swimming 1, 60.6x50cm, acrylic on canvas, 2022

길의 형상이 유발하는 주관적인 감각에 매료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아스팔트 길 표면을 관찰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텅 빈 도화지 같던 길 위의 낮선 그림자, 날카로운 크랙, 깨진 보도블럭, 지워지고 새로 그려져 엉켜 있는 도로표지선 등 갖가지 불협화음과 같은 요소들을 발견했다. 길 위의 이질적인 형상들의 충돌에 나의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이입되며 마치 내면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새로 생긴 듯이 느껴졌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길에서는 새로움이라는 감각에 둘러싸여 외부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흔하고 당연했던 내 집 주변의 길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소용돌이치는 다양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며 끝없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나의 내면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듯 낯설게 정면으로 마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리감은 골목길을 걷다 도로반사경에 비친 타인이 자세히 보니 내 자신임을 알아차리는 것과 비슷하다.

3) 경계인의 감정

경계인(境界人)이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옮겨갈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나치즘을 등지고 미국으로 향한 쿠르트 레빈(K. Lewin, 1890~1947)이 사용한 심리학 용어이다.⁸⁾ 2개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에 속해 있어서 그 문화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의 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주변인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⁹⁾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소속감보다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질감으로 인한 방황과 고독감을 더 강하게 느끼기도 할 것이다.

유년 시절의 전학, 유학,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물리적, 심리적 이질감으로 나는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혹은 주변인 같다고 생각해 왔다. 혼자 길을 걷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 것이

8) [네이버 지식백과] 경계인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831&cid=43667&categoryId=43667>

9) [네이버 지식백과] 주변인 (출처: 상담학 사전, 학지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7169&cid=62841&categoryId=62841>

경계인의 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무미건조한 도시의 길 위에서 혼자 두 발을 딛고 걷기 시작하면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질감으로 인한 내면의 고독과 방황을 체감하는 듯하다.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관계와 집단에 얽히게 되는 다원화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때때로 경계인이 될 것이다. 한편, 경계인의 개념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므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경계인이라는 지각이 없이도 경계인의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감정 중 한 부분인 경계인, 주변인으로서의 고독감과 불안정감은 치유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뤄질 때가 많다. 하지만 경계인의 이질적인 감정과 고독감으로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그 경계선 주변에서 한쪽에 소속되어 치우치지 않고 여러 세계를 동시에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불균형을 직시하는 것은 정신적인 해방감으로 이어져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로운 내면은 길을 걸어가며 갖게 되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감각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이는 다시 작업의 욕구로 이어진다. 사회적인 삶 속에서는 비록 자유롭지 못하지만, 작업의 과정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는 한없이 자유로워진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형태와 색의 왜곡과 변형을 통한 반추상적 표현

나는 ‘도시의 길을 걷기’가 작업의 과정에서 중요한 시작점이라 생각하여 도심 공간 속 길의 형태와 도로 표지선이나 난간 등과 같이 길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캔버스 화면에 남겨두었다. 반면에 다양한 구조물, 건물, 조경과 같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색과 형태의 왜곡을 통한 반추상적인 전개를 하여 주관적인 내면 개입의 정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변형과 왜곡을 통한 반추상적 이미지를 혼재시키며 방황하는 내면과 고독감의 모호한 감정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미술 언어로서의 형태와 색채는 착시현상에서 생생한 작용을 한다. 흘러가거나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볍거나 무겁게, 부드럽거나 거칠게, 즐겁거나 슬프게 보인다. 서로 긴장을 유지하거나 상실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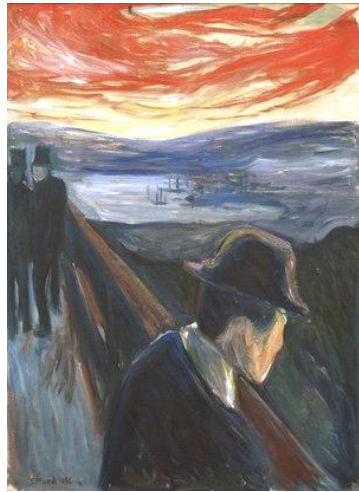


[도판 3] road_0552, road_1835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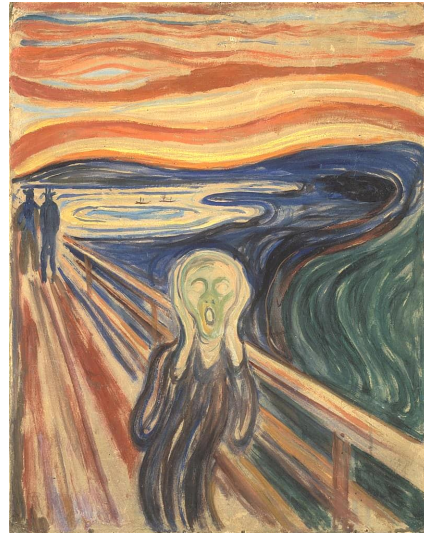
다. 균형이 잡혀 있거나 깨져있다. 조화를 이루거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¹⁰⁾ 소용돌이치는 내면을 느끼며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착각과 오인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나는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반영

10) 프랑크 솔츠, 황종민 역,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미술문화, 2011, p.30

하여 색채와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도판 4] Edvard Munch, Verzweiflung, 70x44.5cm, oil on canvas, 1892, Thielska galleriet, Stockholm, Sweden



[도판 5] Edvard Munch, The Scream, 84x67cm, oil on board, 1893, Munch Museum, Oslo, Norway

심리적인 측면에서 변형과 왜곡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극단적인 감정들을 색채와 형태의 왜곡으로 표현했다. 뭉크의 대표작 ‘절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절망’ [도판4]은 해질녘에 산책을 하던 중 경험한 불안감을 최초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 다음해 완성한 ‘절규’ [도판5]는 전경의 인물을 왜곡시켜 텅빈 눈을 가진 무성의 존재로, 인물과 주변의 자연을 과감하게 단순화시키면서 불안으로 가득찬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¹¹⁾

11) 이리스 뮐러 베스테르만, 홍주연 역, 『뭉크, 추방된 영혼의 기록』, 예경, 2013,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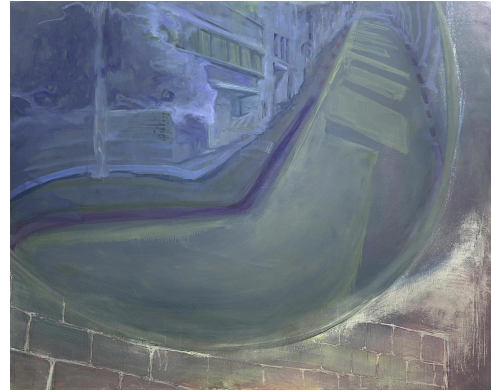
나는 모호하고 복잡한 내면의 깊은 층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의 선택에 집중했다. 1908년 르 그랑드 르뷔에 실린 <화가의 메모>에서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색들의 표현적인 측면은 본능의 차원에서 나에게 과제를 남긴다. 가을의 정경을 그리기 위해 나는 이 계절에 맞는 색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직 가을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느낌에서만 영감을 얻으려고 한다... 나는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색을 선택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관찰, 감각, 체험을 통해 선택한다.”¹²⁾ 피터 도이그(Peter Doig, 1959~)의 작품들은 모호하게 변형된 색의 사용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사가 잦았던 유년 시절과 그의 노마드적인 성향은 경계인 혹은 이방인으로 서 가질 수 있는 감정으로의 연관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는 사진, 영화, 엽서, 신문 등에서 영감을 받아 기억과 감각 사이의 모호한 감성을 회화로 표현한다. 회고적이고 반쯤은 가상의 도이그의 작품은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의 근본적인 불안함에 대해 느끼고 사유하게 한다.¹³⁾ 그는 사실적인 색이 아닌 변형된 색 혹은 모호한 색을 사용하여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도판 6]과 같이 안개 속에 있는 듯한 오묘한 톤으로 고독감과 신비감이 공존하는 풍경이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채색 기법으로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데 특히 가볍고 얇은 채색으로 인해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여기서 나의 작업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고독감과 방황하는 내면을 발견하고 승화하는 도시 속 길 걷기의 과정은 나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모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두 발이 움직이는 신체적인 감각, 소용돌이치는 내면과 대조되는 회색의 정적인 길은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나는 그때의 감정을 모순적으로 변형된 색을 이용하거나 얇게 채색하여 모호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12) 그자비에 지라르, 이희재 역, 『마티스; 원색의 마술사』, 시공사, 1996, pp.154-155

13) 월 콤포츠, 강나은 역, 『발칙한 예술가들』, 알에이치코리아, 2016, p.207



[도판 6] Peter Doig, Lunker,
200x266cm, oil on canva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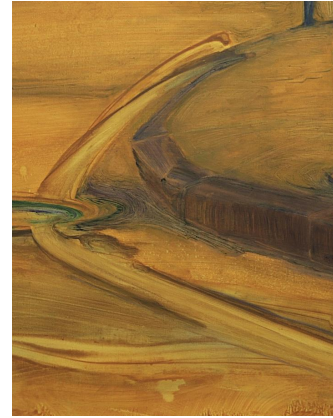
[도판 7] road_in between 4,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3

자 하였다. 한편 도이그의 풍경화는 인물이 있는 인간화, 심리화된 풍경화이다.¹⁴⁾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걷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고독감이 느껴진다. 꿈에서는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있듯 그의 작품을 보며 꿈같은 풍경 속의 고독한 자화상 같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나의 작업은 걷는 사람을 화면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정적인 텅 빈 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몸, 시선, 여러 감각들, 그리고 나의 내면이 전부인 상황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또한 복잡한 도시 속에서 방황하는 내면을 마주하며 혼자 걷는 나의 시선으로 고독감과 해방감의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움직이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보는 이들이 더 자유롭게 각자의 감정을 엿기를 바랬다.

14) 심은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10』, 아트북스, 2013, p.165

2) 붓의 스트로크를 통한 내면의 표출

신체의 감각을 이용하는 붓 스트로크는 변화무쌍한 내면을 표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걷는 동안 감각한 것을 작업 제작의 과정에서 강한 붓질을 통해 표현하며 다시 원초적인 신체성을 느끼게 되면 나와 캔버스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다소 과감한 붓질로 내면의 해방감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거친 돈모나 오래 사용하여 닳거나 굳은 붓 등을 사용하였다. 밑칠 과정에서 강한 붓 스트로크로 변화무쌍한 내면을 표출하는 것이 그때의 감각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붓 터치에 미묘한 변화를 주면서 붓으로 바로 스케치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주관적인 시각과 감정이 촉각적인 공간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생각되었다.



[도판 8] road_breakaway
(detail)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에 강렬한 붓의 스트로크로 이미지를 파괴한다. 베이컨은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돌발흔적들을 조절하고 통제시킨다.¹⁵⁾ 붓의 스트로크로 인한 돌발흔적을 이용하여 구상도 추상도 아닌 불완전한 형식을 추구하는 점에서 나의 작업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구상적인 이미지에서 오는 친숙함과 예측 불가능하고 의외로운 붓의 스트로크에서 오는 낯설음의 양가적인 경험이다.

15) 김진섭,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 이미지의 왜곡의 문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논문, 2004, p.56

관람자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베이컨의 작품은 붓의 스트로크로 강하게 후려치듯 파괴된 괴이함과 같은 시각적인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나는 붓의 스트로크로 인한 동적인 면에서 생기는 긴장감으로 정적인 길과 대비되는 시각적인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기를 의도했다.



[도판 9] Francis Bacon,
Three studies for portrait of Isabel
Rawsthorne, 35.6x30.5cm,
oil on canvas,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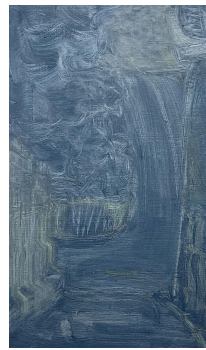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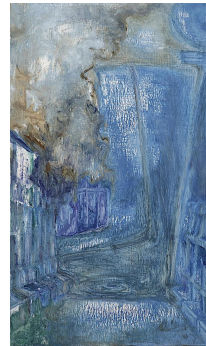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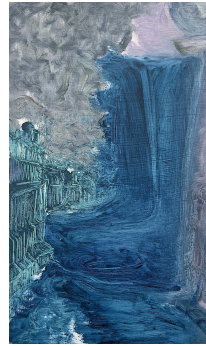


[도판 10] road_in between 3,
45.5x37.9cm, oil and acrylic on canvas,
2022

3.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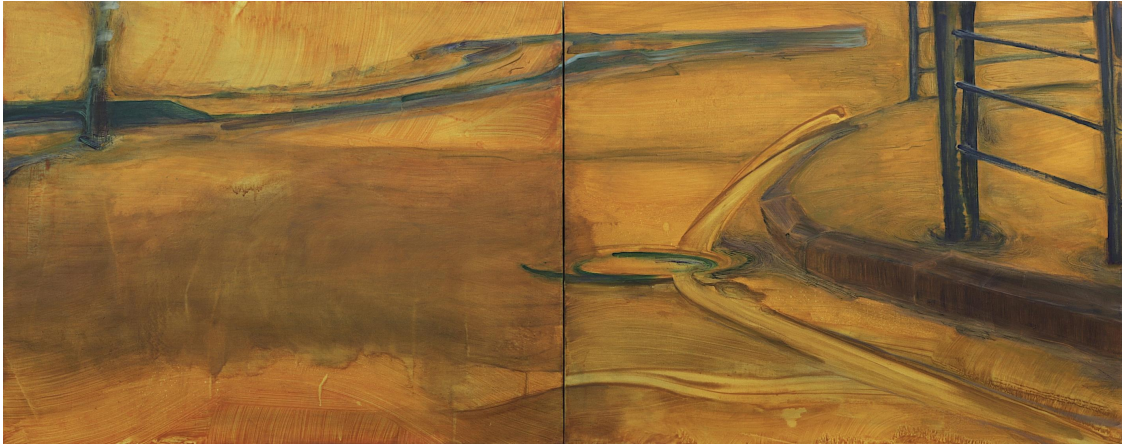
[작품 1] road_spacewalk 1, 130.3x80.3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3



[작품 2]
road_spacewalk
2~4,
45.5x27.3cm/each
, oil on panel,
2024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우주의 신비로움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 거대한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된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한 경험은 나의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걸어 다니면서 지속된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일상적 공간에서 단순한 걷기가 반복되며 나는 어느 순간 소용돌이치는 내면을 온전히 느끼며 지구 끝까지라도 갈 것 같은 초월적 감정을 경험한다. 이는 마치 무중력 상태로 우주 유영을 하는 듯 몸과 마음의 무게가 사라져가는 것과 같다. 새벽에 혼자 걷다 보면 늘 마주하는 언덕길이 끝없이 어디론가 이어질 듯한 특별한 세상으로의 안내자 같기도 하다. 침묵적인 도시 공간 속 언덕길을 두 발로 오르다 보면 그 공간은 어느 순간 매우 비현실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그 과정에서 나는 매우 특별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나의 신체의 일부인 발과 도심 속 길이 접촉하며 나의 몸은 그 공간의 일부가 되고 그 공간 속에 나의 감정을 투영하게 되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을 발견한다. [작품 1]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반영한 road_spacewalk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좁고 긴 캔버스를 세로로 하여 길을 화면 중앙에 부각시켜 길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선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길 주변의 건물, 간판, 나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색이나 형태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물감의 층을 계속 쌓아가며 레이어를 만들어 공간의 깊이감을 주거나 본연의 형태와 색을 드러내어 존재감을 강화시키지 않고 이미지를 단순화시키거나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길 이외의 이미지들의 존재성은 길에 비해 약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의 물감을 올리거나 흘리면서 불명확한 이미지들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길의 표면은 상대적인 차이를 주기 위해 물감을 좀 더 말리면서 차분하게 쌓아갔다. 또한 길 위의 싱크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시멘트 턱과 같이 길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2]는 [작품 1]과 같은 비율의 작은 판넬에 다른 색과 붓 터치를 시도하며 연작으로 진행한 것이다.



[작품 3] road_breakaway, 181.8x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3

[작품 3]은 화면에서 상반되는 색을 사용하면서 내적 감정의 요소들을 강하게 호소하고자 했던 다른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 상반되는 색상보다는 유사색 들을 여러 겹 칠하면서 캔버스 화면 위에 깊은 레이어를 만들고자 하였다. 로우 시엔나와 옐로우 오크 등의 난색 계열로 레이어를 만들어 가며 자연의 땅을 걷는 듯한 느낌을 의도했다. 이는 비록 도심 속의 무표정한 회색 길을 걷고 있지만 나의 두 발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걷기 행위를 통해 솔직하게 내면을 마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자연에서의 고독한 삶을 찬양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가 ‘지표면은 부드러워서 인간이 밟으면 자국이 남는다. 정신이 다니는 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세상의 간선도로들은 얼마나 닳아빠지고 먼지투성일까. 전통과 순응은 얼마나 깊은 바퀴자국을 남겼을까’¹⁶⁾ 라고 쓴 구절은 비록 나는 자연이 아닌 도시 속에서 인공적인 길을 걷고 있지만 자연에 가까운 행위인 걷기를 통해 정신적인 울림을 경험하고 작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감이 되었다.

16) 헨리 데이비드 소로, 김석희 역, 『월든』, 열림원, 2020, p.502

자동차 도로와 인도를 인식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나 횡단보도 표시선과 같은 세부 표현은 생략하거나 대상 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처리하여 모호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붓을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강조하기도 하고, 캔버스 표면을 누르는 붓의 힘과 속도를 달리하거나, 붓으로 물감을 바른 후 천으로 다시 물감을 화면 위에서 닦아내며 캔버스 천의 고유의 질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 장소인 그 길은 사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도로 위에 찍힌 수많은 바퀴 자국, 도로와 인도 위에 찍힌 사람들의 발자국 등의 흔적들은 흥미로운 조형적 요소로서 화면에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텅 빈 거리처럼 보이는 공간 속에 나의 내면을 담고자 하였다. 물감을 천 위에 바르고 누르는 과정에서 나의 감정들은 고스란히 화면 위에 전달된다. 평붓을 빠른 속도로 바르고 쓸어내리는 움직임을 통해 고요한 거리 위로 나의 복잡한 감정을 배출하고 이입한다. 회색빛의 차도와 도로는 그 고유의 이름과 색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나로 인해 작품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된다.

화면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길게 펼쳐지는 구도를 구상하며 양옆으로 넓게 확장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또한 그 공간을 바라보며 미묘하게 변해가는 나의 감정의 상태를 각각의 프레임 안에 넣어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는 화면을 만들고자 하였다. 코너를 따라서 휘어지고 이어지고 또 끊어지는 여러 개의 도로 표시선이 마치 행성의 궤도처럼 느껴졌는데, 그 코너를 따라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마치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과도 같았고 이탈이라는 생각이 들어 작품 제목을 breakaway라고 붙였다.



[작품 4] road_pool, acrylic and oil on canvas, 165x78cm, 2023

한여름 장마철 폭우가 쏟아진 후의 도로의 모습은 건조하고 삭막한 도시를 생경하게 느끼게 한다. 도심의 소음은 폭우에 녹아들어 고요함을 만들어내고 거센 비가 멈추고 나면 서늘할 정도로 적막하다. 또한 폭우가 잠시 멈춘 직후 안개가 가라앉은 길은 평소와 다르다. 온 세상이 녹아내린 듯한 장마철 비는 나에게 새로운 도시 풍경을 선사하고 영감을 준다. [작품 4]에서 나는 폭우가 쏟아진 후 안개로 덮인 도시의 거리를 걸었던 당시의 내적 감정을 캔버스 화면에 담았다. 도로와 그 주변의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디테일의 부재는 대상 하나하나를 재현적으로 그리는 태도보다는 빠른 속도로 화면을 구성하고 담아내어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에 충분했다. 물감을 캔버스 화면 위에서 흘러내리게 하여 이전의 물감층과 만나면서 또 다른 우연적 효과를 만들려고 하였고, 다리 등의 건축적 구조물들을 보다 시각화시키기 위해 화면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보라색들과는 차이를 두어 명도를 밝게 하고 형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작품 5] road_0552, 162.2x112.1cm,
oil on panel, 2023



[작품 6] road_1835, 162.2x112.1cm,
oil on pane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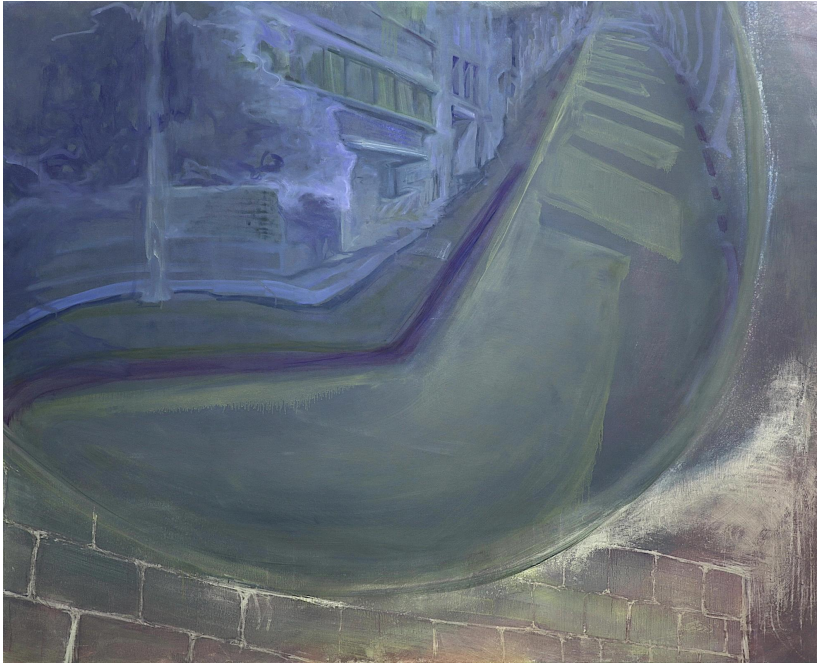
일상에서 자주 걸어 다니는 익숙한 길은 때때로 날씨, 빛의 조도, 시간 등에 따라 매우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걷는 나의 몸과 감정의 움직임이 더해지며 건물, 나무, 전봇대, 난간 등이 흔들려 보이거나 곡선으로 이어져 보이고 묘한 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작품 5]와 [작품 6]은 내가 자주 걸어 다니는 언덕길이 시간성, 심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해석되는 것을 같은 크기의 두 화면으로 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두 특정한 시간에 포착된 감각의 차이를 작업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길을 바라보는 시점을 달리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의 과정 중에 걷는 시간이 반복되며 시간과 감각의 경계가 사라짐을 느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걷더라도 그 전에 감각된 것을 들춰내며 연속성을 느끼게 되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걷

더라도 다른 감각으로 변화된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결국 두 화면은 감각의 연속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면의 모습이 교차되며 이어지고 있었다. 절대적 의미로서의 시간이 아닌 오랜 방황의 시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며 오래된 기억 속의 길을 연상하며 작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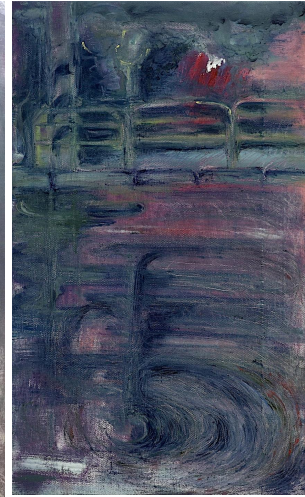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요동치는 나의 복잡한 감정들은 균열되고 왜곡된 형상의 표현으로 이어져 사실적이고 재현적으로 묘사된 풍경이 아닌 추상적으로 변형된 풍경으로 나타난다. [작품 5]의 경우 아스팔트 길, 난간, 보도블록, 원경의 건물, 하늘, 등의 요소들이 나의 내적 감정을 반영한 대기와 섞여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보여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공간을 직접 걸어가며 마주하는 여러 이미지들은 나의 모든 감각들을 통해 내게 저장되고 눈에 잔상을 남긴다. 그 잔상은 다시 나의 소용돌이치는 내면과 얽혀서 울림을 주고 다시 작업의 욕구로 이어진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가 길을 걸어가며 가졌던 사소한 착시 현상까지도 재현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붓질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숙한 길에서 항상 봐왔던 난간, 건물, 나무, 도로 표지판 등 당연한 것이 모순되는 다른 것으로 보이거나 추상적으로 보인다. 이 시각적인 균열에 나의 딜레마(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자유를 갈망하는 내면)로 인한 내적인 갈등은 강한 감정이입을 하게 한다.

나무 판넬에 작업을 한 이유는 거친 나뭇결과 나의 붓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였다. 물감이 나무에 과하게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프라이머 바인더로 3번의 밑칠을 하고 젯소를 3번 발라주었지만 나무표면은 캔버스 천에 비해 물감이 더 스며들음을 느꼈고 그 과정이 흥미로웠다. 내적인 갈등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고자 나무 판넬에 시작했지만 결과가 아닌 작업의 과정에서 충돌과 수용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작품 7] road_in between 4,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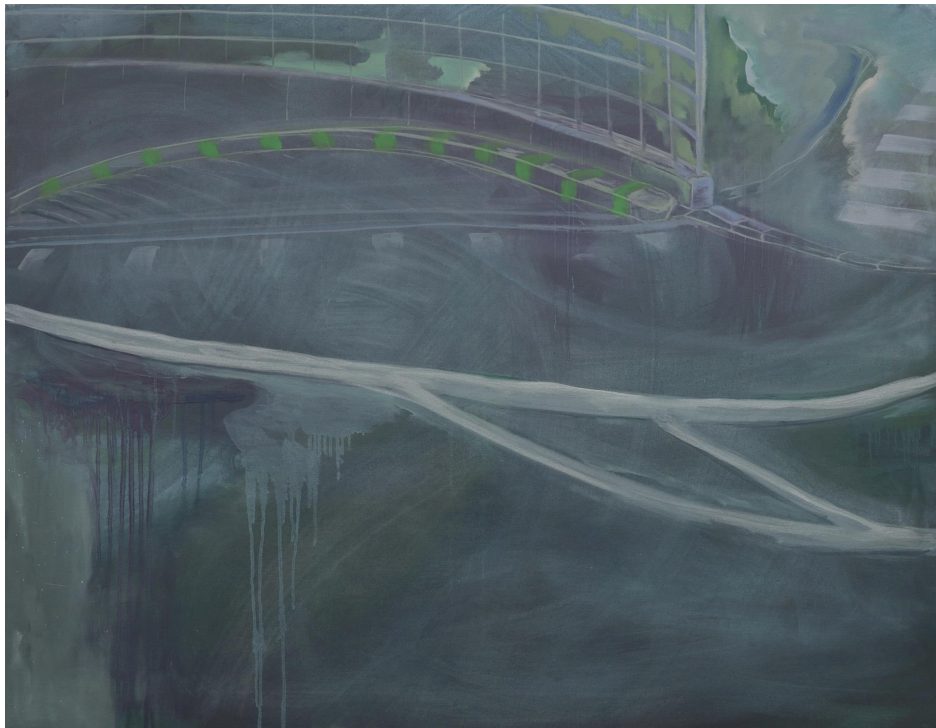


[작품 8] road_in
between 5,
45.5x27.3cm, oil on
canvas, 2023

저녁과 밤의 경계에 있는 기묘한 시간, 도로 반사경 안과 밖의 경계, 차도와 인도의 경계 등 경계에 놓인 시공간이 주는 모호함과 담벼락, 난간 등과 같은 공간을 나누는 동시에 두 공간을 이어주는 경계선이 된다는 양가적인 의미의 요소들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 혹은 속하고 싶지 않은 경계인 같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작품 7]과 [작품 8]은 바탕칠 위에 대비되는 색으로 여러 겹 레이어를 주며 모호한 느낌의 화면을 만들고 딱딱하게 굳은 짧은 빛으로 긁어내듯이 거칠게 붓질하여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내면의 표출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러 겹의 물감층을 긁어내듯 붓질하며 서서히 형태를 만들어 갈 때는 마치 그 당시 길 위에서 느낀 비현실적이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작품 7]은 자주 걷는 익숙한 길이 도로 반사경에 비쳐 낮설게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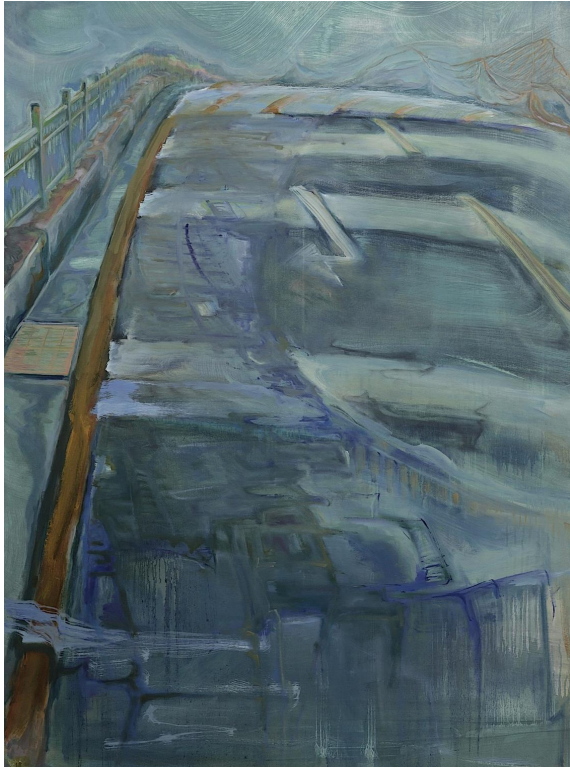
는 경험이 자신의 낮선 내면과 마주하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이다. 골목길을 걸어가며 경계선 같은 담벼락 앞에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도로 반사경 속의 낮선 길은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는 듯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색이라 불리는 퍼플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양면성이 혼재하는 모호한 내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특히 도로 반사경 속 길에 비친 그림자와 도로 표지선은 얇게 채색하여 투명한 느낌을 연출하여 거울에 비치는 길 위에 모호한 내면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작품 8]은 어두운 아스팔트 길 위에 가로등에 비친 그림자의 형상을 거친 붓으로 긁어내어 모호한 내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길 건너에 있는 인도와 차도 사이의 난간은 양가적인 의미의 경계선으로 작용하여 나의 현실과 이상의 모순적인 상황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9] road_in between 2, 116.8x80.3cm, oil on canvas, 2022

도시의 수직적인 건물들 사이의 길 위를 걷는 나의 시선과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마주하며 생기는 긴장감은 세로형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작품 9]는 그동안의 세로형 작업에서 벗어나 가로형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명상과 유사한 초월적인 고요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순간 나는 극도의 해방감을 느낀다. 외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아스팔트 도로와 도로 표지선, 연석의 페인트가 저녁의 대기와 가로등 불빛으로 만들어 낸 모호하지만 차분한 시공간에 나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두운 회색을 섞은 바이올렛으로 바탕칠을 하고 물감이 1/2 정도 건조되면 밝은 회색, 프러시안블루 등의 물감을 칠한 평붓으로 이전의 물감층을 지우거나 가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레이어들이 서로 중첩되는 효과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형태의 모호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지하, 지상, 근경, 원경, 대기, 등 모든 요소를 원근감이나 입체감 없이 평면적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보도블록, 연석과 가벽의 표현을 최소화하고 선묘 드로잉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이는 복잡한 내면을 표현한 중첩된 붓질의 흔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작품 10] road_swimming 3, 130.3x97cm, oil [작품 11] road_swimming 2, 141x105cm,
on canvas, 2023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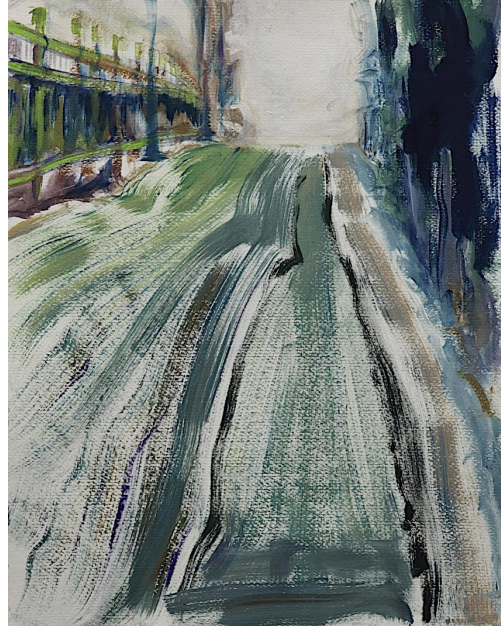
나는 개발이 막 시작되던 계획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중교통 노선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학교도 새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였다.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와 차가 거의 없는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풍경의 전부였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늘과 도로가 만나는 곳을 쳐다보며 몽상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인지 오르막길 끝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을 보며 걷다 보면 유년 시절이 자주 떠오른다. 가파른 오르막길은 긴장감을 주지만 오르고 나면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 같기도, 무중력 상태로 우주를 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수영(游泳)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높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

님과 어떤 경지를 즐기라는 부수적인 뜻이 있다. 가파른 오르막의 긴장감이 끝나는 지점은 산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와 같은 해방감을 준다. 탈것이 다양한 도시의 삶 속에서 걷기를 선택하여 길 위에 두 발의 교차를 의식하며 이동하는 육체적 고됨의 단순성은 정신적 고됨의 해소로 이어진다. 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며 복잡한 내면의 감정이 승화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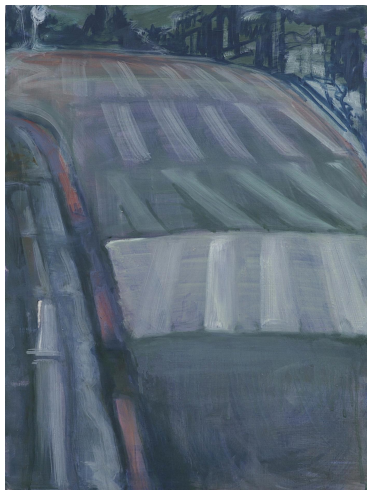
[작품 10]은 그림자, 크랙, 도로 표지선 등으로 아스팔트 길 위는 혼란스럽지만 오르막길을 오를수록 차분해지며, 오르막길 끝은 대기가 섞여 사라지듯 표현하여 변화하는 나의 내면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11]은 아크릴 물감으로 바탕칠을 했는데 주조색으로 사용한 버밀리언은 아크릴 물감이 유화물감에 비해 탁함이 적어서 상반된 색으로 흘러내리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여도 긴장감이 유지되어 만족스러웠다. 경사도가 특히 높은 이 길을 걸어 올라갈 때는 심박수가 증가하는 게 느껴져 버밀리언 특유의 에너지가 이 길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을 밟다쓰리면 비현실적인 벽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감을 캔버스 화면에서 흘러내리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며 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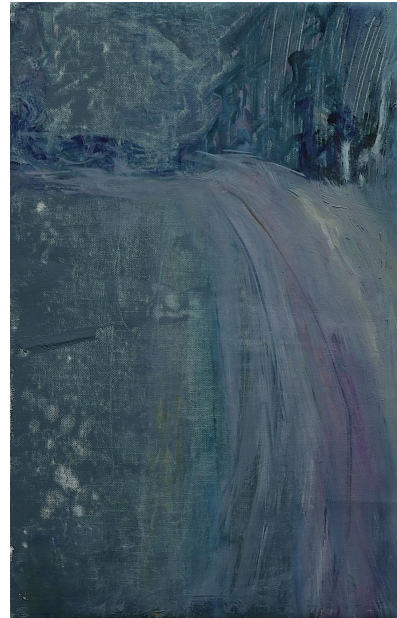
[작품 12] road_stranger 2, 50x40cm,
acrylic on paper, 2022



[작품 13] road_zero gravity 1,
50x40cm, acrylic on paper, 2023



[작품 14] road_0635,
40x3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2



[작품 15] road_zero gravity 2,
53x33.4cm, oil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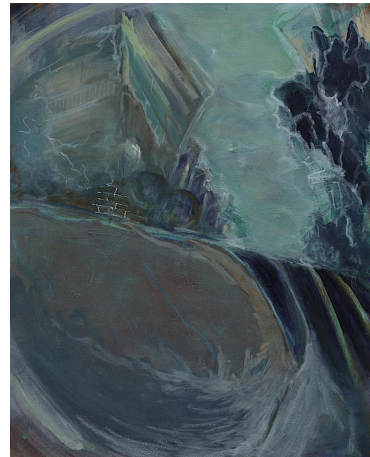
국도는 직접 걸어가는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날아가는가에 따라 다른 위력을 보여준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자연 풍경 사이로 길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를 볼 뿐이다. 그에게 길은 그 주변의 지형과 동일한 법칙에 따라 펼쳐진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의 영향력을 경험한다.¹⁷⁾ 특히 오르막의 가파름은 직접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위력이 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려 할 때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생긴다. 그와 반대로 중력을 따라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가파른 내리막길은 절제와 제어를 위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작품 12]~[작품 15]는 이러한 상반된 긴장감을 상승과 하강을 의미하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무중력 상태의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내려오자마자 느낀 감각이 희미해지기 전에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종이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빠르게 작업하거나 작은 캔버스에 드로잉 하듯 작업을 했는데 이는 다른 작품을 진행할 때 다시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작품12]는 한낮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의 긴장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 아래의 그림자는 한색인 비리디언 물감이 흘러내리게 하여 상대적으로 오르막길 끝의 열기를 강조하였다. [작품 13]은 즉흥적으로 드로잉 하듯 작업하여 그 길에서 느꼈던 해방감을 최대한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여러 번의 붓질로 물감의 레이어를 쌓으며 감정의 변화와 해소감을 느낄 때와는 달리 종이의 질감을 드러내는 가벼운 붓 스트로크를 통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작품 14]는 새벽의 서늘함과 가파른 오르막의 긴장감이 더해져 생긴 낮선 감각을 드로잉 하듯 작업하였다. [작품 15]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거칠게 붓질하고 뻗어 올라가듯 선묘 드로잉한 건물과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원형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무중력 상태의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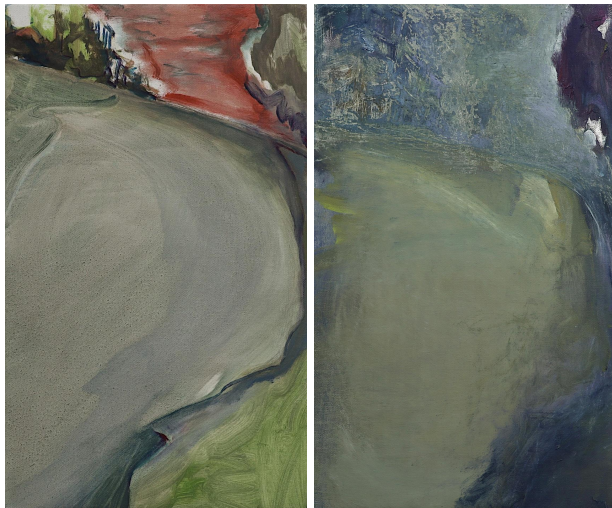
17) 발터 벤야민, 김영옥, 윤미애, 최성만 역, 『일방통행로 사유이미지』, 길, 2007,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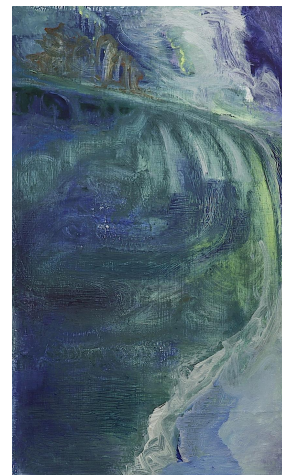
[작품 16] road_stranger 6,
130.3x97cm, oil on canvas, 2022~3



[작품 17] road_stranger 7,
50x4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3



[작품 18] road_stranger 8~9,
45.5x27.3cm/each, oil on canvas, 2023



[작품 19]
road_stranger 10,
40.9x24.2cm,
oil on panel, 2024

‘색조의 투쟁, 잃어버린 균형, 붕괴된 ‘원칙’, 예기치 않은 복치기, 커다란 의문, 그럴싸한 목표도 없는 노력, 분열된 충동과 동경, 많은 것을 하나로 묶는 사슬과 굴레의 분쇄, 대립과 모순-이것이 우리의 하모니이다 ... 우리들의 조화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에서의 위대한 원칙이었던 대립의 원칙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립은 내적 대립으로서, 그것은 홀로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는 다른 원칙들의 모든 도움을 배격한다’ 18)

[작품 16]~[작품 19]는 매일 걷는 익숙한 길에서 만난 생경함을 시각화하기 시작하며 연속으로 진행한 작업이다. 나는 무엇의 그림자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가파른 길 아래로 무겁게 내려오는 기묘한 그림자에 강한 감정이입을 했다. 이 기억은 그림자에 대한 추상적인 감상과 함께 불협화음과 같은 요소에 대한 표현 욕구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초기 작업에서는 이 그림자를 강렬한 보색으로 채색하여 이질적인 요소에 나의 감정이 이입됨을 강조하였다. 형태와 색채를 선택함에 있어서 불협화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나의 내면을 투영하는 것은 이질감 가득한 내면을 마주하고 승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묘한 그림자의 발견을 시작으로 주택, 나무, 등 그 골목길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곡선으로 이어지고, 골목길 끝은 대기과 섞여 사라졌다. 변형과 왜곡을 통한 반추상적 이미지를 혼재시키며 방황하는 내면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18)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23,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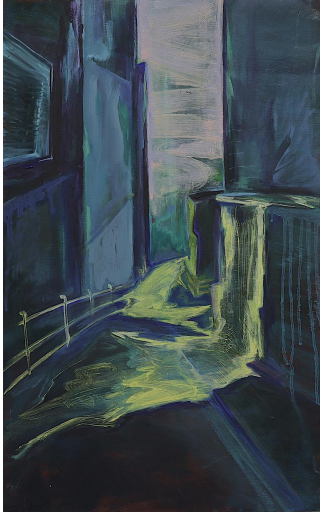
[작품 20] road_swimming 4, 145.5x97cm, oil on canvas, 2023

“목적을 알 수 없는 매우 단순한 운동은 그 자체가 의미 깊고, 비밀에 가득 차고, 뿐만 아니라 엄숙한 운동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은 사람들이 운동의 외적, 실제적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지속한다 … 극적으로 작용해 우리는 부지중에 마치 환상과 특수한 차원의 생활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된다 … 이러한 경우들은 특히 우리가 길을 거닐며 추상적인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쉽게 나타난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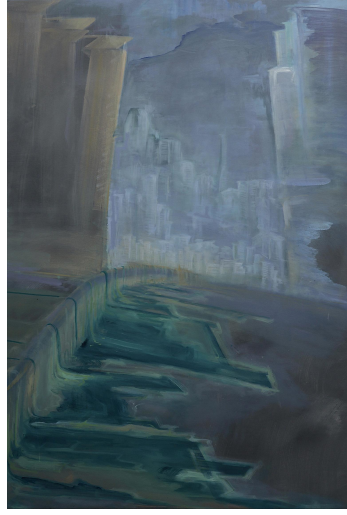
빠르게 이동하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대로에서는 한가한 골목길과 달리 도시 생활의 속도감이 느껴진다. 그 공간에서 모순으로 가득한 망황하는 내면을 마주하며 걷다 보면 어느덧 이동하는 모든 것들에서 떨어져 지나와 어딘가에서 표류하는 듯한 감각으로 이어진다. [작품 20]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서 나 혼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는 듯한 비현실

19)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23, pp.11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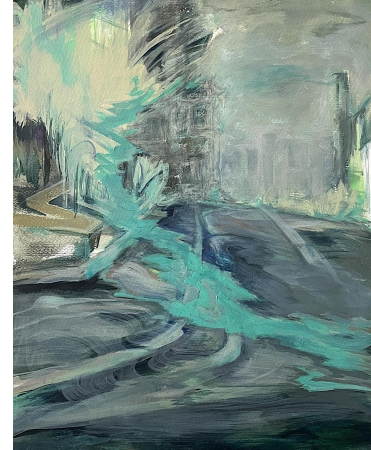
적인 느낌을 나타내고자 한 작업이다. 아스팔트 길을 어둡고 몽환적인 심해와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프리시안블루를 중심으로 조색하여 바탕칠을 하고 색상을 더해가며 물감이 스며든 후 닦기, 물감 흘리기, 긁듯이 붓질하기 등의 과정으로 깊은 물감층을 쌓았다. 차도의 중앙 분리대는 구분과 연결의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 모호한 경계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쪽 부분을 긁어내어서 물감의 아래층이 드러나게 하여 희미하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펜스 너머의 원경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가로 방향으로 붓질을 하여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하여 무겁게 멈춘 듯한 심해와 대조되는 느낌을 의도하였다. 화면 속에서 대조적이거나 양가적인 요소들을 교차시키며 소속감 없이 표류하는 것 같지만 걷고 있는 신체의 확실한 감각으로 인해 방황하는 내면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강한 존재감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21] road_flow 1,
53x33.4cm,
oil on panel, 2022



[작품 22] road_flow 3,
130.3x89.4cm,
oil on canvas, 2022



[작품 23] road_flow 4,
50x40cm, acrylic and oil on
paper, 2022

자주 걷는 길에 익숙해지면 그 공간이 전하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대신 이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강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한다. [작품 21]~[작품 23]은 수많은 생각들로 방황하는 나의 내면이 평화로워 보이는 길 위로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림자에 이입되어 불리일으키는 이질감을 붓 스트로크를 통해 표현하였다. 길 위의 그림자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부와 대비되는 색을 이용하여 즉흥적인 붓질로 마무리했다. 반면에 도시 공간을 암시하는 건물이나 난간, 중앙 분리대 등을 모호하게 묘사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몽환적인 느낌의 도시 풍경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1]은 무표정한 건물 사이의 어둡고 좁은 내리막길과 대비되는 가볍고 투명한 느낌의 레몬 옐로우색으로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작품 22]와 [작품 23]은 원경의 건물이 뿌연 대기와 섞여 사라지듯 모호하게 표현하고 터콰이즈 블루를 조색하여 그림자를 강조하였다.

III. 결 론

속도전과 같은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두 발을 길 위에 내딛고 교차시키며 중력을 느끼며 걸어가는 행위는 분명 불편한 선택이다. 반면에 도시 속의 무미건조한 길 위에 두 발을 딛고 걷는다는 확실한 신체의 감각은 나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시작점이었고, 걷기를 지속해야만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걷기라는 행위는 나의 작업에서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걷는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 감각들이 더 섬세하게 확장되고 더 깊은 내면의 층위에 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계인의 심리적인 방황, 고독감, 그로 인한 자유로움 등과 같이 양가적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감정은 나에게 친숙하다. 나는 일상 속 길을 걷어가며 이를 재발견하고 심도 깊게 사유하며 마주한 해방감을 길이라는 공간에서 회화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경계인 혹은 주변인의 감정은 다원화 사회 속의 현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해결 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막연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깊은 내면의 감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작품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내면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승화하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순간의 감정에 따라 즉흥적이거나 감각의 흐름에 따를 때가 많은 편이라 각각의 작업뿐 아니라 층층이 쌓인 내면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복잡한 내면의 근원을 마주하고 승화하는 과정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순적인 상황과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방황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풀어야 할 과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증과 같은 불편한 감정은 계속 나를 자극할 것이란 것을 깨달았고 이는 결국 작업의 욕구로 이어짐에 감사한다.

나는 더 나아가 이 경험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며 더 깊은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조형적인 측면으로는 길을 걷는 감각을 더 자유롭게 형상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캔버스를 이어서 가로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해 볼 계획이다. 또한 형태의 묘사와 왜곡의 비율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내면의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다. 색채의 사용과 표현 기법에서도 더욱 과감한 미학적 실험을 통해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그자비에 지라르, 이희재 역, 『마티스; 원색의 마술사』, 시공사, 1996

다비드 르 부르통, 김화영 역, 『걷기예찬』, 현대문학, 2007

리베카 솔닛, 김정아 역, 『걷기의 인문학』, 반비, 2023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19

발터 벤야민, 김영옥, 윤미애, 최성만 역, 『일방통행로 사유이미지』, 길, 2007

세인 오마라, 구희성 역, 『걷기의 세계』, 미래의창, 2022

심은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10』, 아트북스, 2013

안토니오 다마지오, 고현석 역, 『느낌의 발견』, 아르테, 2023

올리비에 르모, 서희정 역, 『자발적 고독』, 돌베개, 2019

윌 고펜츠, 강나은 역, 『발칙한 예술가들』, 알에이치코리아, 2016

윤미애, 『발터 벤야민과 도시 산책자의 사유』, 문학동네, 2020

이리스 윌러 베스테르만, 홍주연 역, 『몽크, 추방된 영혼의 기록』, 예경, 2013

장 자크 루소, 김모세 역,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부북스, 2014

장 자크 루소, 박순만 역, 『고백록』, 집문당, 2017

프랑크 슐츠, 황종민 역,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미술문화, 2011

프레데리크 그로, 이재형 역,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책세상, 2014

헨리 데이비드 소로, 김석희 역, 『월든』, 열림원, 2020

2. 학위 논문

김진섭,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 이미지의 왜곡의 문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김혜영, 「리처드 롱(Richard Long, 1945~)의 작품에 나타난 ‘도보
(Walking)’」,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정화, 「프란시스 알리스: 예술적 실천으로서 ‘걷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3. 웹 사이트 &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edvardmunch.org>

<https://www.francis-bacon.com>

<https://www.moma.org/artists/8087>

<https://www.michaelwerner.com/exhibitions/peter-doig3>

<http://www.richardlong.org/index.html>

[네이버 지식백과] 경계인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83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주변인 (출처: 상담학 사전, 학지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7169&cid=62841&categoryId=62841>

ABSTRACT

A study on inner self
through semi-abstract expressions of the road
– Focusing on my works –

Kim Youj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content and formative aspects of the work based on my paintings exhibited in January 2024, for the master's degree exhibition under the title of [road]. The 'road_' series visualizes the sense of liberation by using the image of the road, in the process of rediscovering and sublimating the deep inner self through 'walking', which is a natural human action.

I often think that I am a marginal man who does not have a definite sense of belonging. Complicated emotions such as solitude and wandering caused by a sense of incongruity that belongs to nowhere are rediscovered on the cold asphalt road in the city that I face while walking on my own two feet. This rediscovery leads to

the experience of encountering deeper inner layers in the process of sensing and thinking about myself and feeling a sense of liberation. This experience, which is insufficient to express in words or writing, was expressed in the language of painting.

Many studies on walking advocate walking in nature getting away from the busy life in the city. Meanwhile, I, who have never lived outside the city, pay attention to walking in the city. This is because the primitive physical movement provided by the act of walking itself is thought to be meaningful as an act of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Starting with walking down the road in the city, which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work, the shape of the road becomes the main subject of the work. While walking along familiar roads in daily life, I captured contradictory scenes and subjective sensations from unfamiliar moments or optical illusions and reflected them in my works. As I continued to walk the same road, I accumulated layers, reflecting differently perceived moments and changing inner emotions. I intended to highlight the presence of the road by excluding dynamic elements such as people and cars while revealing elements that suggest a road. Subjective emotions were intervened by transforming and distorting the colors and shapes of elements that make up the city, such as buildings and landscaping. In addition, I expressed my inner self through impromptu brush

strokes, leading to a semi-abstract form that comes from the familiarity of the familiar road and the unexpectedness of unpredictable brush strokes.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confronting and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inner emotions of marginal people, which may be a part of the other side of modern people, by exploring the process of rediscovering the contradictory inner self and feeling a sense of liberation, starting with a simple walk in daily life. I also hope that it will solidly establish the meaning of my future work through deep insight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study on formative expressions and aesthetic attempts.